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악인의 갑작스런 멸망

(시편 64:1-10)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악한 자들의 갑작스런 심판으로 의인들은 기뻐할 것이고, 의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게 될 것입니다.

본편에서와 같이 다윗이 원수에 대한 언급이 없이 시를 마친다는 것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다윗의 사랑하시는 이, 지혜로운 목자로 묘사한 후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에게는 개인적인 원수보다 국가적, 공적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시인에게 인간적 도움이라곤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본편의 핵심 단어는 ‘갑자기’, 즉 기대함 없이 또는 경고함 없이 라는 말로서 악한 자의 갑작스런 공격(4절)과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갑작스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 시인의 불평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1절).

시인은 자기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다윗의 사적인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神政)을 파괴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다윗의 공적을 말합니다. 다윗은 원수의 두려움에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에 필요한 담력인 것을 아는 시인은 자기 안에 있는 공포심을 발견하고 이 공포심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원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원수를 무서워하는 공포심이므로 시인은 우선 이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또한 시인은 원수의 비밀한 음모와 행악자의 소동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2절). ‘소동’은 균동 또는 폭동을 의미하는 말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행악자들은 자신의 비합리적인 계획을 힘으로 이루기 위해 균동의 폭동을 유발하여 성도를 매도하기를 획책합니다.

2. 악한 자들로부터 위협

본 시는 하나님보다 시인을 공격하는 악한 자에 대해 씌어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남을 해치려는 음모를 꾀합니다(2절). 외국인이 아닌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숲속이나 검불 속에 숨은 뱀이 독을 품고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짐을 들고 나와 악인의 음모에서 숨겨주시고, 악인의 소동에서 감춰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이 칼 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 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3절).

원수들의 무기는 말(언어)입니다. 시편 57, 59편에서도 다윗은 원수의 말을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말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에 대해 경계의 말씀을 주었습니다(약 3:5-8). 사실 말씀은 성령의 주무기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말은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사 55:11).

우리는 세상의 무기가 아닌 주님의 무기를 들고 전장에서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무기는 돈, 권력, 명예,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고 싸워야 할 무기는 주님의 무기, 곧 말씀과 기도입니다.

악한 자들은 후미진 곳에서 기다리는 복병처럼 무고한 의인을 불시에 기습하여 치명타를 입히고 태연해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을 도모하고도 ‘이를 누가 알랴’고 하는 오만방자한 자들로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남몰래 울부짖는 일을 함께 의논하는 자들입니다.

행악자들은 죄악을 꾸미면서 묘책을 찾았다고 자랑합니다(6절).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렘 17:9)라고 외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롬 3:12-14)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악인의 극악함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신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 하나님의 갑작스런 간섭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장에서 악한 자에게 관해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들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살전 5:3). 이 말씀은 본편의 말씀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룬다는 것입니다.

시인 주변의 악인들에게 아직 어떤 응징은 내리지 않았지만 조금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응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징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실현되어 억울함을 당할 자도 없고 교묘하게 피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쉽게 폭발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응징은 화살같이 빠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응징의 결과는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기세를 부리던 악인들은 일시에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8절). 둘째, 응징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널리 알리는 한편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9절). 셋째, 의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길이 찬양합니다(10절). 이것은 악인들이 망했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노출될 것이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갑작스런 심판으로 의인들은 기뻐할 것이고, 의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게 될 것입니다.

참 신앙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악한 자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피하며 하나님을 길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제3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일정 확정되다

9월3일(월)-11월5일(월) 10주간
주제: 『한국교회와 국가를 위한 리더십』

8월13일(월) 팸플렛 발송시작

9월3일(월)부터 시작되는 제3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의 모든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와 국가를 위한 리더십'을 주제로 9월3일(월)부터 11월5일(월)까지 10주간 계속되며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초청하여 '지도자의 비전과 국가발전'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고 질의와 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하여 목회자 세미

나 준비위원들은 주중에 모임을 갖고 내일(8월13일, 월요일)오전부터 회원들과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이번 세미나를 안내할 팸플렛을 보내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함께 봉사하며 수고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 나라를 바로 이끌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요청한다.

32학기 목회자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교시	2 교시		
마태복음 연구 (이종운 목사)	9월3일	예언자의 리더십	손석태 총장(개신대)
	9월10일	사도들의 리더십	김철홍 박사(장신대)
	9월17일	칼빈과 그리스도의 사역	Paul wells 교수(불란서 Aix en Provence)
	9월24일	공휴일(추석)	
	10월1일	예수님의 리더십	배현주 교수(부산장신대)
	10월8일	지도자의 비전과 국가발전	대선후보①
	10월15일	지도자의 비전과 국가발전	대선후보②
	10월22일	지도자의 비전과 국가발전	대선후보③
	10월29일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가변화	김상철 변호사(미래한국신문)
	11월5일	목회자의 리더십과 사회변화	김영재 교수(합신대)

2007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9월3일(월)-11월11일(주일) 10주간

성경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는 서울성경대학과 주부대학, 살롬경로대학, 마리아 학교, 세계선교대학 등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열린 프로그램이 9월3일(월)부터 11월11일(주일)까지 10주간 진행하게 된다.

각 프로그램 별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강좌	요일/시간	담당	장소
빌립보서	월, 오전 10:00	서명철 목사	602호
열왕기상	화, 오전 6:00	장석남 목사	602호
출애굽기	목, 오후 7:30	한상은 목사	602호
골로새서	금, 오전 6:00	정수길 목사	602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20	이태훈 목사	609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20	정수길 목사	607호
주부대학	화, 오전 10:00	한상은 목사	602호
살롬경로대학	목, 오전 10:00	서명철 목사	101호
세계선교대학	월, 오후 7:00	이규정 목사	501호
마리아 학교	목, 오전 10:00	박금실 전도사	706호
찬양대양성반	주일, 오후 1:30	윤영국 목사	601호
결혼예비학교	주일, 오후 12:40	이규정 목사	905호

2007년 2학기 장학금 수여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교회 장학회(위원장: 노문환 장로)는 2007년 2학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은 모두 47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에 봉사하는 모범적인 학생들을 선발하였으며 총 5,06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2007년 2학기 장학생들은 반드시 오늘 찬양예배에 참석하여 장학금을 받도록 한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 이 나라를 이끄는 이들로 서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브리스길라 장학생**: 박혜원
- **신학생 장학금**: 장정남
- **송암장학생1**: 박한샘 구슬희 이영희 박혜진 정동호 권소라 안영수
- **송암장학생2**: 박복실 김철훈 김영복 김경철 최명진 주영철 김명 재정석
- **일반 대학생 장학생**: 오주명 신동빈 조광희 김성국 임현우 김은비 고아라 김성신 홍하연 이인영 김필구 최인에 김영수 박소영 김세연 박선희
- **선교사, 교역자 자녀**: 이한나 이혜나 이건우 임진호
- **일반 고등학생 장학생**: 서윤영 유희상 조재민 최동현 송연재 이연정 이석훈 이상휴 정희제 임지선

8월1차 성경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3등: (13교구)문금희 성도
- 2등: (1교구)박두영 장로 박순자 권사 (5교구)김진숙 권사 문승순 집사 (12교구)김숙자 권사 (14교구) 김우숙 권사
- 1등: (1교구)강석조 집사 강수남 집사 정은길 성도 (2교구)유근종 집사 원복순 권사 (3교구)고정숙 권사 김연옥 권사 원용범 집사 오유식 집사 유치열 성도 이봉규 권사 이준영성도 (4교구)최종희 집사 (5교구)이남복 권사 이영주 집사 (6교구)김규희 집사 김원웅 집사 민순구 장로(7교구)남영주 권사 (8교구)김광욱 집사 박혜원 전도사 장석남 목사 채덕희 권사 (9교구)김순자 권사 이순영 권사 (11교구)주원순 선생 (12교구)김대웅 집사 박우주 권사 여옥기 권사 이남호 장로 이수자 권사 (13교구)김복순 집사 김영식 권사 (14교구)한난숙 집사 (초등부)박연경 정희준

주일 국가시험 폐지

여론조사 참여

8월14일(화)까지

주일에 치르는 국가시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일요일 국가시험 폐지"를 위한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현재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가 실시 중이며, 금주 화요일(8월 14일)까지 계속된다. 지금까지는 주일 국가시험 폐지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지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번 기회에 주일 국가시험 폐지가 입법화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에서 **1005를 누르고 버튼을 누른다.
2. 조선일보 여론조사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휴대전화 인터넷으로 연결버튼을 누른다.
3. 접속 되면 찬성(1)에 투표한다.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팀 보고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 디아스포라부

제7기 이스라엘 단기선교단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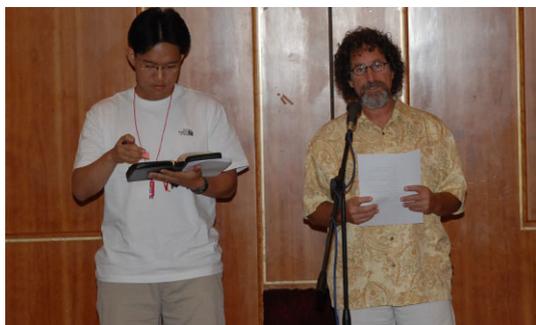
순례자의 집, 눈물로 설립 예배 드리다

오주명 (대학부)

제7기 7월30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단기선교단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난 8월 9일(목) 오후 10시 30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단기선교단은 10박 11일 동안의 선교일정을 통해서 '순례자의 집 (The Pilgrims' House)' 설립 예배 참가, 설문조사, 교회탐방 및 교회지도자와의 만남, 이스라엘 이해를 위한 성지순례 등 계획된 모든 일정들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 특히 '순례자의 집' 설립 예배는 이미 알려진 대로 지난 8/5일(주일) 오전 10시 숙소였던 살롬호텔의 세미나실(마제타 홀)에서 단기선교단을 포함해 총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이항명 선교사의 인도, 노문환 장로의 기도, 제이 크로니쉬 선교사의 설교에 이어 이종윤 목사의 이메일 축사로 진행된 1부 예배에 이어, 2부에는 대청부 단원들이 수개월간 정성껏 준비한 경배와 찬양, 단막극 등이 올려졌는데,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대청부 단원들이 감격의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 또한 히브리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설문조사도 여하



(영어)과 이스라엘의 반기독교적 분위기에 대한 부담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잘 진행되어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스라엘과 유대교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교회와 교회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탐방 및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교회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해의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의 사해지역과 북쪽 갈릴리 지역을 골고루 방문해서 성경의 무대가 되었던 지역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 단기선교단이 계획된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7기 단기선교단 일동은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깊이 간직하며,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사명을 감당기 위해 계속 기도하고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특한 복음화를 위하여

김학철 (디아스포라부)

저는 서울교회 디아스포라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어느덧 북한에서 함께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친구의 소개로 서울교회에 출석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교회에 출석하면서 매 주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디아스포라부에서 진행하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내 자신이 얼마큼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는지 가능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미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성경학습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몇 년간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디아스포라부 여름수련회를 통해 저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종윤 담임목사님의 특강을 통해 지금까지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북한복음화와 재건을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곳 서울교회에서 리더로서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북한에서 탈출시켜 이곳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시는 목적입니다.'

수련회에 참가한 우리 탈북청년들을 향한 이종윤 목사님의 절절한 목소리가 지금도 내 귓가에 들려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도전을 주신 윤영국 목사님과 박광일 전도사님을 비롯해 교사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모습 속에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바로 설정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부 여름수련회에서 이종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전진하자!

디아스포라부 여름수련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교회에서 듣게 되는 많은 말씀과 찬양 중에 가슴에 담기게 되는 것은 각자 다르겠지만, 언젠가부터 저에게 매주 부르는 헌금송이 의미있게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부끄럽게도 대부분의 시간은 이 사실을 잊고 주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작고 연약하게 태어난 제가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동안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배울 수 있는 머리를 주신 것도, 나의 근간이 되는 가족을 주신 것도, 교체할 수 있는 친구들과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들을 나이에 맞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고민과 방향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교회를 통해 많은 장학혜택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는 의사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내가 살아온 이만큼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동안 제가 받았던 교회의 기도와 사랑이 담긴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차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헌금송을 부르는 시간을 포함한 매 순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정희진 (청년부)

2007년 2차 새가족 환영회 8월18일(토) 오후 5시 8층 만나홀

2007년 2차 새가족 환영회가 8월18일(토) 오후 5시 8층 만나홀(801호)에서 열립니다.

이번 새가족환영회는 4월21일 이후 등록된 성도들과 서울교회에 등록된 후 새가족 환영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강기우(바리톤, 한양대 강사), 김재찬(베이스, 한성대 강사) 선생의 순서로 준비된다. 연주 곡목은 아베스의 기도 외 1곡(강기우), 한 평생 주님 위해 외 1곡(김재찬)이다.

아파트전도 특별 세미나 - 9월 4일(화) 서울교회에서 -

강남노회에서는 박봉수 목사(상도중앙교회, 총회전도학교 특별강사)를 모시고 아파트전도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아파트가 어느 지역보다 많은 강남의 지역에서의 이번 세미나는 전도자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교육일정은 9월4일(화) 오전 9:00~ 오후 4:00이며 중식이 제공 된다.

2007 바자 - 오늘 첫 모임

9월13일(목)-14일(금) 오전 10:00- 오후 7:00

이웃을 섬기며 사랑의 집을 건립하기 위한 2007년 바자(위원장 박두호 장로)가 열린다. 9월13일(목)-14일(금) 이틀간 오전 10:00부터 오후 7:00까지 서울교회와 인근 한티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바자의 준비위원회는 오늘 오후1시 104호에서 첫 모임을 갖

는다.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준비되는 이번 바자가 이웃을 섬기며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집 건립에 온전히 사용되도록 기도한다.

< 조 직 >

- **대회장:** 이종윤 목사 · **지도:** 서명철 목사 · **위원장:** 박두호 장로
 - **기획부:** 최규초 김시환 이강인 오승민 최입수 이종형 배재송
 - **재정부:** 송인권 홍일성 오형철 김영주 전광영 원용범 홍승전 원용규 이영희 김정희 안분선
 - **판매관리부:** 오광환 이계홍 장 덕 오치열 은기장 이찬호 박광식 임광호 황병석 최미아 정미연 위성남
 - **섭외부:** 최광성 이몽단 이상태 김성준 이종창 우지원 이동권 송인수 김광태 김상태 백승갑 안홍희 윤석호 이겸순
 - **홍보부:** 김종윤 서춘식 정동호 강석우 김규태 진교남 신동기 허숙 김민철 유대서
 - **시설관리부:** 양춘경 조동완 오유식 임옥균 장양일 김원웅 윤운식 이양철 이인근 김광욱 최차순 김형상 배준길 이길재
 - **주차관리부:** 정동학 강승웅 박태선 이경구 김경학 구정두
 - **점포담당(지도/점포장/영업부장/총무부장/실행위원)**
- 1**점포:** 이규정/노문환/윤병구 임승자/박현영 임옥균 장양일 김광통 서경학 박찬성 전행자 박영자 정정숙 이인숙 임승자 서경애 이민영 경은숙 박한옥 안미경
2**점포:** 이규정/오정수/한주찬 배병이/최홍열 최홍렬 한중현 김익환 김영환 김원중 오종래 손현순 이윤희 신금진
3**점포:** 이태훈/정병무/한인진 박정순/유승순 이경구 최정인 박이선 곽선자 소선자 이자혁 김현정 이혜경 이민숙 최문주 홍정란
4**점포:** 이태훈/김영준/이학평 박미혜/손태기 김현관 박재숙 김숙연 최중희 나연신 김숙자 백혜숙 마은숙 박우욱 김영란 정천수
5**점포:** 정수길/성준경/이승래 장낙희/이종형 박태선 최소희 김영희 김경희 엄금순 이영희 이관모
6**점포:** 정수길/노송성/서명호 윤숙희/권장철 최용길 박정수 김규희 노정숙 최성희 유종숙
7**점포:** 장석남/이영기/정동학 한성욱/이태원 신종근 이상호 유형석 김재성 이영숙 박윤혜 함은희 공진문 김차순 백영자 오영자 정연택
8**점포:** 장석남/서문석/장낙훈 김정은/김종승 김광욱 이동권 김영일 이봉선 한준홍 여현진 서영희 주의현 강희자 김영정 이종돌 강명신 남순덕
9**점포:** 서명철/윤복집/이남성 황노천/이제원 김천용 유신 임낙서 윤종택 이부자 김순자 전용순 황재연 조상희 이성에 곽숙 최영란 이영희 장명순 이순영 김병화 최양자 김은숙 유요종
10**점포:** 서명철/윤찬오/김재근 김은순/류종관 조성영 권장환 예완식 진승근 이선우 최무순 홍재식 백정순 김경희 진선자 박연순 정경자 이혜선 조숙자 노옥자
11**점포:** 한상은/박정선/한상준 김혜련/이승우 양인수 이영호 안인호 양미숙 박천희 조정옥 신정순 송명원 전화진 김양숙 유숙인
12**점포:** 한상은/김광신/홍창배 김선영/김형택 한길동 김대웅 송성식 김관홍 서희숙 나가태 전원순 김숙자 박영옥 위성남
13**점포:** 윤영국/조정식/주동재 박춘자/김옥 방효철 윤동수 윤태욱 박조현 박길수 주영도 김영식 이순희 권은주 김영숙 김보경 서종숙
14**점포:** 윤영국/신용식/한광파 이신애/김재중 차영도 권혁우 이종창 최현인 김진희 박정민 유성민
특관: 서명철/오정수/유을상/김영호/한종우 박정수 전용택 김규환 손태현

동정

- **이사:** 정인주 집사 김정애 집사 가정 은마@17-1115 김병호 집사 김현주 집사 가정 은마@31-1201
- **승진:** 6교구 박형호성도 수협중앙회(방화동지점) 과장 승진
- **주간식당 봉사:** 루디아전도회(8.12) 보보전도회(8.19)
- **금주의 식사:** 이복규 장로 한명순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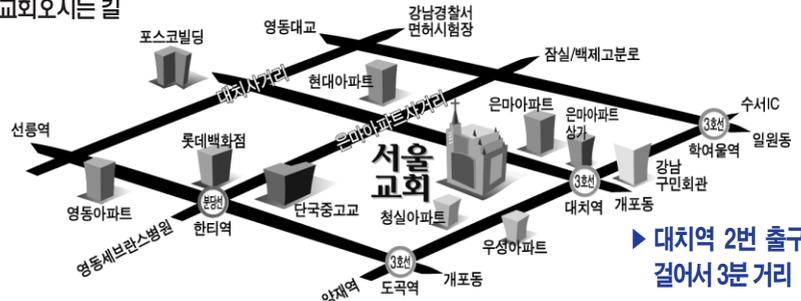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성경 일천독 대상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3. 무더위에 온 교회 성도들 영 · 육간에 건강하도록
4.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어 있는 성도들 무사 귀환토록
5.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